

광주대, 봄맞이 골 폭죽... 8년만에 대학 축구 정상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배, 제주국제대 5-1 제압 MVP·득점상·수비상·최우수 지도자상 등 개인상 싹쓸이

광주대가 대학 최강자를 가리는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배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8년 만의 정상 탈환이다.

광주대는 지난 6일 경남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바다의 땅 통영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기 결승에서 제주국제대를 5-1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통영배 결승에서는 선문대가 전주대를 3-1로 꺾고 우승팀에 이름을 올렸다.

예선에서 '강호' 중앙대와 고려대를 격파하고 조 1위로 16강행을 확정짓는 광주대는 이후 송실대(1-0), 한남대(4-0), 청주대(2-1)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정주대와와의 준결승전에서 멀티골을 터트렸던 설현진이 다시 주인공이 됐다.

설현진은 전반 1분 만에 상대 수비 실수를 틈타 선제골을 기록했다. 광주대는 전반 31분 김명순의 크로스를 받은 박규민의 골로 2-0으로 전반전을 마감했다. 후반 3분 설현진의 멀티골에 이어 후반 20분에는 김명순이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4-0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광주대는 후반 30분 실점은 했지만, 후반 35분 안재선의 추가골로 5-1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우승을 지휘한 이승원 감독은 "광주대 감독 부임 후 5년 만에 우승했다. 그동안 쌓여있던 에너지가 싹 사라졌다"며 "축구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껴주신 김혁중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선수들이 이번 우승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장 오건택은 "선수 모두가 감독님 코치님의 지도를 잘 따르며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며 "동계 훈련기간 동안 체력과 조직, 전술훈련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우승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대는 개인상도 휩쓸었다. 김태민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이번 대회에서 5골을 기록한 박규민이 득점상을 받았다. 김재홍은 수비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승원 감독과 정승운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편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81개 팀이 참가해 2개 리그에서 우승을 다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대 김명순(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6일 경남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주국제대와의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배 결승에서 후반 20분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스트라이크 굿~” 웃음꽃 핀 윌리엄스 감독



오선우



이이리

KIA 캠프 첫 연습경기...임기영·이이리·볼펜 필승조 구위 점검 '초구 스트라이크' 목표 공격적 피칭 합력점...오선우, 첫 홈런

'호랑이 군단'의 실전 테스트가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가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캠프 첫 연습경기를 소화했다.

예년보다 느린 템포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KIA의 첫 실전이 시작되면서 엔트리 경쟁에도 불이 붙게 됐다.

이범호 총괄코치가 이끄는 2군 캠프단이 원정 유니폼을 입고 블랙팀으로 선공을 펼쳤고, 윌리엄스 감독이 이끄는 1군 캠프단은 홈 유니폼을 입고 화이트팀으로 경기에 나섰다.

화이트팀 마운드에 먼저 눈길을 쏠린 경기였다. 선발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드암' 임기영과 '루키' 이이리가 먼저 마운드에 올라 컨디션 점검을 했다. 이어 홍상삼-이준영-고영창-박준표 등 필승조 후보들이 나란히 출격해 첫 실전을 소화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한 경기. 이날 KIA 투수들은 아웃카운트와 상관없이 투구수에 맞춰 한 이닝에 3명의 타자와 승부하기도 했고, 그 이상을 상대하기도 했다.

정해진 투구수 등에 차이는 있었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목표는 '스트라이크'로 같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캠프 시작 때부터 '스트라이크'를 강조하고

있었다.

임기영부터 공격적으로 첫 실전을 잘 풀어갔다. 첫 타자 황은호를 3구째 1루수 파울플라이로 처리한 임기영은 이어 2개의 공으로 김영환을 좌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임기영은 최정용과의 승부에서도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8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중견수 플라이를 잡으며 삼자범퇴로 1회를 정리했다.

임기영은 2회 2사에서 김현준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했지만, 2회 상대한 5명 타자에게 모두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졌다.

3-4회에는 이이리의 시간이었다. 양현종의 공백 속 '선발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루키의 첫 등판 결과는 6타자 상대 1볼넷 1탈삼진이었다.

일단 시작은 스트라이크였다. 박민을 상대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진 이이리는 5구 승부 끝에 중견수 플라이를 잡았다. 황은호와의 승부에서 초구는 불이였지만 2구째 중견수 플라이. 세 번째 김영환과의 맞대결에서는 볼넷이 기록됐다.

15개의 투구수가 기록되면서 투 아웃에서 3회 등판을 끝낸 이이리는 4회에는 세 타자를 상대했

다. 첫 타자 최정용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고, 유민상과 장영석은 각각 우익수와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변화구 제구가 아쉬웠지만 묵직한 직구 구위로 인상을 남겼다. 이날 최고 구속은 148km까지 기록됐다.

이어 볼펜진도 공격적인 패턴으로 투구를 하면서 윌리엄스 감독을 웃게 했다.

윌리스 감독은 "첫 실전에서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많이 잘 던져 매우 만족스럽다"며 "대부분 타자가 한 타석 이상을 소화했고 수비도 깔끔했다"고 총평했다.

이번 캠프 첫 홈런 타자 타이틀은 오선우에게 돌아갔다.

화이트팀 8번 타자로 나선 오선우는 3회 이준영을 상대로 한 첫 타석에서 우중간 담장을 넘기고 2라운드를 돌았다. 백용환도 8회말 바뀐 투수 오규석의 초구를 좌측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손맛을 봤다. 수비에서는 "역시 김호영"이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2회 유민상의 안타상 타구를 낚아챈 중견수 김호영은 패조의 움직임으로 실력 발휘를 했다. 첫 타석에서 9구째 삼진으로 물러났던 김호영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우중간 2루타도 기록했다.

한편 KIA는 8일 훈련 뒤 9-10일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를 위해 대전으로 떠날 예정이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수 받은 패자' 광주FC

K리그1 홈 개막전 울산에 0-1 엄원상·이도뜸 등 공격진 8개 슈팅 공·수서 압도하며 박수 갈채 받아

홈 개막전을 치른 광주FC가 박수 받은 '패자'가 됐다.

광주FC는 지난 6일 광주죽곡전용구장에서 열린 울산현대와의 K리그1 2021 2라운드 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광주는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울산에 압도하는 경기력으로 관중석을 채운 1953명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앞선 수원삼성과의 개막전에서 단 2개의 슈팅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던 광주는 두 번째 경기에서는 8개의 슈팅을 날렸다. 이 중 5개는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에 막힌 유효슈팅이었다.

광주의 핵심 엄원상은 물론 김주공, 김중우, 한희훈이 슈팅 행진에 가담했다. 특히 김호영 감독이 '공·수의 복안'이라고 내세운 이도뜸 카드도 위력적이었다.

김호영 감독은 이날 엄원상을 원톱으로 해 이도뜸-김중우-이찬동-김주공을 2선에 배치했다. 앞선 수원삼성전에서 전면에 섰던 김주공이 측면으로 빠졌고, 송승민을 대신해 이도뜸이 전진 배치됐다.

김호영 감독은 경기 전 "측면 수비수지만 좋은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 패싱을 적극 활용하려고 투입했다"며 "상대 왕백 김태환의 오버래핑을 저지하기 위한 수비와 공격 두 가지 복안이다"고 이도뜸의 기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도뜸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머리와 발로 공세를 펼쳤다. 조현우를 놀라게 한 강력한 왼발슈팅도 몇 차례 선보이면서 공격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기대 대로 울산의 공세를 차단하는 역할에서도 만점활약을 했다.

경기가 끝난 후 김호영 감독은 "오른쪽에서 거의 상황이 없었다. 이동준 돌파, 김태환 오버래핑을 막았다. 공격의 시발점 역할도 하고 세트피스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여줬다"고 이도뜸의 활약을 평가했다.

이도뜸 카드도 분위기를 바꾼 광주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투지'였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이자 올 시즌 K리그1 '우승후보'인 울산에 상대로 광주는 투지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호영 감독은 "적극적으로 했고, 골도 많이 때렸고, 찬스도 많이 만들었다. 득점을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울산보다 좋은 경기를 했다"며 "이런 잠재력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고맙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고 선수들의 투지에 박수를 보냈다.

중원을 지킨 주장 김원식을 중심으로 선수들은 온몸을 날려 울산을 저지했다.

광주로 복귀한 윤보상도 수비라인의 기싸움을 주도하며 특급 실력을 보여줬다.

김호영 감독은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기싸움에서 수비라인에 힘이 되어주고 있다. 감독 입장에서 고마운 선수다"고 윤보상의 활약을 언급했다.

희망을 찾은 광주는 첫 승 상상을 위한 강행군에 나서게 된다. 10일 오후 7시 대구 안방으로 가 3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13일 안방으로 돌아와 오후 2시 전북현대와 대결한다. /김여울 기자 wool@

이이리, 직구 148km... 눈도장 '왕'

3회 등판...스트라이크 비율 62% '변화구 더 가다듬어 오겠다'

"아쉬웠다"며 KIA 타이거즈의 '루키' 이이리가 프로 첫 실전 소감을 밝혔다.

고졸 신인 이이리는 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자체 연습경기에서 화이트팀 두 번째 투수로 출격했다.

임기영에 이어 3회 마운드에 오른 이이리는 4회까지 6명의 타자를 상대하면서 29개의 공을 던졌다. 이 중 18개의 공이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했고 볼넷 하나와 삼진 하나가 기록됐다.

나쁘지 않은 결과지만 아쉬움을 이야기 한 이유는 변화구 제구 때문이었다.

이이리는 "어제 변화구 그림을 바꿔서 던져봤다. 오늘 실전에서 슬라이더와 커브 그림을 바꿔서 던져봤는데 잘 안 됐다"고 토로했다.

밸런스도 이이리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이리는 "힘은 좋았는데 타자를 세워놓고 마운드에서 던져보는 게 처음이라서 밸런스가 잘 안 잡

힌 것 같다. 아직 내 밸런스가 잘 안나오고 있다. 점점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며 "첫 등판이라 긴장 많이 했다. 앞으로 계속 던져야 하니까 익숙해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제구와 밸런스는 속제가 남았지만 '직구'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이이리는 직구 최고 148km를 찍었다. 무엇보다 묵직한 구위가 눈길을 끌었다. 이이리의 힘에 밀려 잘 맞은 타구들도 외야 멀리 뺏지는 못했다.

미국에서 KIA 타이거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습경기를 지켜본 양현종도 "이리 불이 무시무시하네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겨우내 몸을 키운 이이리는 "볼이 많이 묵직해진 것 같다. 몸이 좋아지니까 힘도 많이 불고 공이 가면서 힘이 좋아졌다는 것도 느껴진다"며 "양현종 선배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것 같다. 아직 부족하지만, 양현종 선배의 자리를 메우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다음 등판 때는 오늘처럼 던지겠다. 대신 오늘보다 좀 더 변화구가 좋아지게 던지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